



기, 6.25사태, 국제통화기금(MF)구제금융 등 과거사를 보여주며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한 대한민국 국민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이번 광고는 메리츠화재의 역사성과 위상을 드높이고 100년 기업으로서의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리츠화재는 1922년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시작해 1950년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오다 지난 2005년 제2의 창업을 목표로 현재의 메리츠화재로 사명을 변경했다.

[동원F&B] 동원 순닭가슴살 새광고



생하게 보여준다.

[롯데리아] 한결같이 즐거운 롯데리아 광고

33년의 오랜 브랜드 역사를 지닌 롯데리아가 배우 송중기를 모델로 사용,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롯데리아의 메뉴를 즐기는 상황과 장소, 서비스를 소개하며 오랜 시간 한결같은 롯데리아의 즐거움'을 표현한 새광고를 선보인다. 롯데리아는 송중기의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통해 더욱 친근하고 즐거운 롯데리아로 거듭날 계획이다.



[LG전자] 트롬 6모션' 새광고 눈길



LG전자가 트롬(TROMM) 세탁기의 새로운 모델로 배우 이민정을 기용, 신선힘을 주고 있다. 이번 광고에서 이민정은 트롬만의 기술인 6모션을 표현하기 위해 '트롬 6모션 송'을 직접 불러 화제가 되고

있다. 또 국내 최대 용량의 건조 겸용 드럼세탁기 '트롬 6모션'의 기술력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포스코] 소통 주제로 한 광고 캠페인 선보여



포스코가 직장 내 부장과 신입사원의 소통을 담은 '셔플댄스' 편과 이웃 간 이야기인 '이웃' 편을 통해 이해와 공감을 통한 소통을 주제로 새광고를 선보였다. '셔플댄스' 편은 중년의 부장이 신입사원과의 소통을 위해 셀프댄스를 배운다는 내용이다. '이웃' 편은 서로 인사하기, 이웃집 아이 이름알기 등 이웃의 정을 생각하게 하는 에피소드로 구성됐다. 포스코는 광고뿐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한 캠페인에서 '오늘의 소통 주제'라는 태그를 아래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소통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삼성전자] 스마트기기를 통한 스마트한 생활



삼성전자가 스마트 모니터 새광고를 통해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연관된 브랜드의 광고를 묶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렐레이 애드(Relay-AD)' 방식으로 표현된 이번 광고는 거리에서 갤럭시 노트'로 모바일 영상을 즐기던 남성이 실내로 들어가 갤럭시 노트를 스마트 모니터에 연결함으로써 PC를 켜지 않아도 영상을 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야쿠르트] 발효유 R&B 새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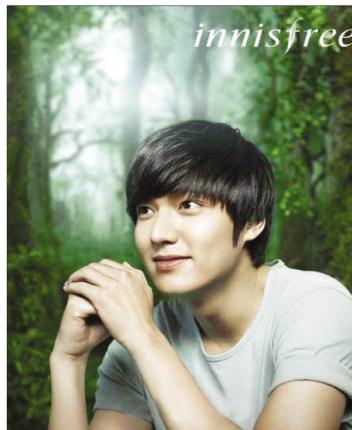


한국야쿠르트는 발효유 R&B 새광고의 모델로 김수현과 신세경을 기용, 리듬과 밸런스를 맞춰주는 발효유 R&B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맞춤형 장발효 유 R&B는 140g의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으로 둔감한 장에는 리듬을, 특히 받은 RBB 유산균으로 민감한 장에 밸런스를 맞춰주어 장 타입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맞

춤형 발효유 제품이다.

[이니스프리] 포레스트 포맨' 새광고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가 꽃남이 민호를 모델로 기용, 새로운 남성리안인 '포레스트 포맨' 출시를 알리는 새광고를 선보인다. 이니스프리 '포레스트 포맨'은 청정 제주 곳자왈의 소나무, 삼나무, 편백나무의 제주 피톤치드 콤플렉스'가 함유되어 남성들의 지친 피부를 회복시켜주는 남성 전용 스킨케어 라인으로 총 15종으로 구성됐다. 광고 역시 제주 곳자왈에서 촬영, 청정 제주의 깨끗함과 편안함을 그대로 담아냈다.

[IBK기업은행] 새광고 히트 예감



IBK기업은행이 전국노래자랑의 '국민MC' 송해를 모델로 한 새광고를 선보여 전작에 이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작 안 국민 모두의 은행' 편은 친근함과 신뢰성을 겸비한 국민MC 송해씨를 통해 기업은행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새광고에서

는 아역배우 김유빈이 힙류, 기업은행이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 임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있다.

[롯데홈쇼핑] 사회적 기업들 광고방송 후원

롯데홈쇼핑이 사회적 기업들의 광고 방송 제작과 송출을 후원한다. 롯데홈쇼핑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기업 광고방송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매주 수요일 36개 사회적 기업 중 한 업체씩을 선정해 자사 채널을 통해 광고방송을 송출